

강진군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 활용 방안 찾기 분주

광주·전남 최초 챗GPT 시연회

청자축제 AR 보물찾기 도입

AI군정뉴스 제작 유튜브 방영

강진군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군정 전반에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광주·전남 최초로 챗GPT(대화형 인공 지능서비스) 시연회에 이어 강진청자축제에서 AR(증강현실) 보물찾기를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군정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새롭게 꾸렸다.

관광·여행, 식품·유통, 문화·예술, 행정 등 군정 전 분야에 활용해 강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군은 지난달 강진원 강진군수와 실·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AI가 개발한 챗봇 '챗GPT' 첫 시연을 진행했다.

시연회에서는 쌀값올리기, 고려청자만들기 등을 시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청자축제 AR 보물찾기를 통해 군정에 4차 산업혁명 활용의 새 가능성을 확인한 군은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 전라병영성적제에도 VR(가상현실) 게임을 새롭게 선보인다.

VR 게임은 부스 안에 모니터와 관련 장비가 설치돼 VR안경과 게임기구를 들고 진행되는 신개념의 게임 방식으로 흥겨운 K-POP과 함께 진행된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AI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AI군정뉴스'를 27편 제작해 기관 유튜브로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의 한 게임 개발사를 방문해 강진군만이 가진 청자, 영광, 다산 등 차별화된 자원을 4차산업혁명과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며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발전의 혁신적인 대안을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원(맨 왼쪽) 강진군수가 지난 15일 카카오킴즈의 자회사인 게임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찾아 이한순(오른쪽) 부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청년 일자리 허브 '우뚝'

특구 지정 이후 1441명 늘어

2030년까지 5000명 고용 창출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생물·의약산업단지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을 양대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2002-2013년 1단계 인프라 구축, 2014-2019년 2단계 사업영역 확장, 2020년 이후 3단계 벤처창업 육성 시기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생물의약품산업에 백신을 비롯해 의·생명 분야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화순전대병원엔 의료기

기 분야인 메디컬 클러스터가 구축됐다.

화순백신특구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독감백신 공급과 2020-2021년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등 국가 백신주권 확보에 기여했다.

또 바이오 GMP 제조 전문인력을 158명 배출하고 2024년 WHO 글로벌허브 바이오 인력양성 실습장으로 지정되는 등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14개사가 입주해 115명 고용, 57억원 매출 실적을 냈으며 졸업기업 5개사는 54명 고용, 1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화순백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고용인원 1441명이 늘어났으며 기업유치 실적도 지난 2021년 33개로 10년 사이 10배가 넘었다.

화순군은 오는 2030년까지 화순백신특구에

5000명 고용, 100개 기업 유치, 총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전략으로는 첨단 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혁신체계 확립, 백신산업 특구 확장, 대형 국책과제 수행,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조성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향한 화순군의 포부가 백신산업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대한민국 유일의 백신특구를 보유한 화순군에서 젊은 청년들의 꿈이 영글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분원 유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혁신도시 품은 나주 빛가람동 동민의날 지정하고 기념행사

25일 축하공연·노래자랑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탄생한 나주시 빛가람동이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 만에 동민의 날을 제정하고 25일 첫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나주시는 오는 25일 나주 빛가람동 중앙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빛가람동 동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제1회 빛가람동 동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빛가람동은 지난해 '빛가람동 동민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민 투표로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개소일인 '2월 24일'을 동민의 날로 제정했다.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는 올해 첫 기념행사를 빛가람동 25일에 맞춰 중앙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

전기관장들은 영상 메시지로 동민의 날을 축하한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11시 기념행사로 풍물패, 시립국악단 축하공연이 행사의 막을 올린다.

1부에선 선행학생상, 효자·효부상, 장수상, 봉사상, 공로패, 감사패가 수여된다. 2부에선 초대 가수 공연, 동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와 경품추첨 1등에겐 고급형 냉장고가 상품과 경품으로 지급되며, 행사장을 찾은 동민들에게도 기념품과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빛가람동 마을·기관·사회단체별 홍보·체험 부스가 차려지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장영배 빛가람동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은 "첫 기념행사인 만큼 많은 동민들이 참여해 당일 하루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흥 지역민들이 지난 1955년 10월 해동사를 건립해 안중근 의사 위패를 봉안하는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 해동사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제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도 박차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 '장흥 해동사'에서 오는 26일 순국 113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앞두고 추모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해동사 일대를 추모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동사 인근에 애국탑방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했다.

올해는 추모 역사관과 전시물을 개발해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동사와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전국적인 캠페인(플래시 몹)을 통해 안중근 의사 정신을 선양할 계획도 세웠다.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에 있는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를 유일하게 배향하는 사당이다.

지난 1955년 장흥 죽산 안씨 문중과 장흥 지역 유지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당시 죽산 안씨 문중은 순흥 안씨인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당을 짓고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사우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받들어 모시고 있다. 안 의사의 친필 글씨 3점을 과학적으로 복제한 영인본도 걸려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해동사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이 미래 세대에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잘 마무리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희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청소년 참여기구 발대식 위원 28명 정책 발굴·제안 활동



담양군이 '청소년이 행복한 담양 실현'을 위한 첫걸음 뒀다.

담양군은 최근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14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를 매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위촉된 청소년참여기구 위원들은 1년간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평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28명을 위촉했으며, 이어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참여기구의 공식적인 첫 활동을 시작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청소년과 담양군 서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1년이 되길 바란다"며 "담양의 청소년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농업 직불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강진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증가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해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제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다. 활동하고 있는 농지

소제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면적 0.1~5ha이다.

무농약은 3년(3회), 유기농은 5년(5회),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의 경우는 기한 없이 지급된다. 단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무농약 배는 '유기전환 필치'만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김한중 장성군수가 성산리 밀등마을에서 열린 제 78회 식목일 기념행사서서 주민들과 함께 편백나무를 심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밀등마을서 식목일 기념행사

편백나무 3000 여주 심어

장성군이 최근 장성을 성산리 밀등마을에서 '제 78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성군민, 산림단체 회원을 비롯해 김한중 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년생 편백나무 묘목 3000여 주를 심었다.

군은 국내 최대 인공조림지인 죽령산 편백숲으로 유명하다.

편백나무는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를 소나무보다 4~5배 가량 많이 배출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산인 백암산, 불태산 등 전체 면적의 61%가 임야일 정도로 숲과 나무가 많다.

군은 이같은 장점을 활용해 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 규모는 118ha에 이른다. 숲가꾸기 사업 성과도 뛰어나다. 지난해에는 제방산 편백조림지가 산림청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2021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며 "이날 심은 편백나무 묘목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 해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집 수리 봉사 함평 해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기동대장 노용균)가 지난 21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재능기부로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전국 국화동호인 대상 분재 교육

함평군은 전국 국화동호회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국화분재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은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4회에 걸쳐 전담 기술위원의 지도로 국화분재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는 함평군 등록 품종인 나비연옥, 나비금강 등 9종을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 특

별 분양하고 있으며, 국화분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재 수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의 분재작품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국화대전에 전시할 예정이다.

박은하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회원들의 열정적인 국화와 함평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멋진 분재작품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